

## 김양건 통전부장이 남한을 방문한 까닭

### 서 재 진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소장

북한의 김양건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지난 11월 29일부터 2박3일간 남한을 방문한 배경에 대하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통전부장이기 때문에 통일전선전술의 목적이 없을 수 없겠지만, 그것만은 아닐 것이다. 남한 방문기간 동안 조선소, 세관, 인천항만, 통신사 등 남북경협 관련 대상들을 둘러보면서 남북 합의사항의 이행을 다짐하였고 남한과의 경협에 대한 적극적 태도를 보여주었다. 김양건 통전부장의 남한방문은 북한의 남북경협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남북정상회담, 총리회담, 국방장관회담 등 잇단 회담에서 방대한 합의를 해놓은 것에서 드러났듯이 북한이 남한을 대하는 태도는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정상회담과 총리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은 남북 회담 유사 이래로 가장 방대한 양의 합의이다.

우리의 관심은 북한의 최근 대남태도가 급격하게 달라진 배경이 무엇인가이다. 확실히 북한은 핵문제 관련 6자회담 및 미국과의 관계개선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남한과의 거래를 확대할 수 있는 국제적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보고 남한에 대한 접근을 본격화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과거 1980년대 말 사회주의권 붕괴직후 북한은 일본과의 수교협상과 병행하여 남한과의 관계개선에 임하여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에 호응한 바 있다. 그런데 1992년 11월에 북핵문제가 돌출됨에 따라 남한과의 관계를 전면 중단하고 말았다. 이제 핵문제가 해결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1990년대 초 핵문제 해결이전의 남북관계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최근의 남북관계의 진전을 설명하기 어렵다. 더 절박하고 중요한 이유가 있다. 지난 십수년간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북한의 경제가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었고 그 결과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도 과도하게 커졌다. 북한 시장에 거래되는 상품의 대부분은 중국산이며, 북한의 각급 국가기관, 군부대가 예산조달을 위하여 운영하는 무역회사의 상대국도 대부분이 중국이며, 중국의 원유지원도 북한경제에 절대적이다. 이러한 실태를 잘 알고 있는 중국 정부는 북한의 폐쇄적 정책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하며 개혁·개방을 중용하고 있으며 최고위층에서 갈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중국의 영향력이 김정일의 권력유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북한 지도부는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중국의 경제적 지원이 확대되기를 원하지만 정치적 영향력은 감소시키지 않으면 안된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 북중관계는 순망치한(唇亡齒寒)으로만 단순화할 수 없는 이면이 있다.

결국 북한은 남한은 물론, 미국, 일본, 러시아 등 모든 주변국에 접근하여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북한의 전통적인 외교 패턴인 등거리 외교를 함으로써 중국의 영향력을 상쇄시키고 나아가서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견제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맥락에서 북한은 남한으로부터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도 얻어내고 북한에 진출한 중국의 경제적 힘도 상쇄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990년대 말에 당국간 회담에 호응하기만 하면 식량을 지원하겠다는 우리의 제안에 따라 북경에서 차관급회담을 개최한 적이 있었는데 북한의 반대로 회담과 식량지원이 결렬된 적이 있다. 너무나 큰 격세지감을 느끼게 된다.

북한이 최근에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중국에 대한 견제 목적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2·13합의 직후 미·북 관계정상화 실무회의차 뉴욕을 방문한 김계관 외무부상이 중국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관심이 있다고 한 발언은 미국 상대를 기쁘게 하기 위한 외교적 발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북한은 대남정책의 변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내부적 조율도 하고 있는 징후도 보인다. 가령, ‘2007 남 북정상선언’ 전문에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치면 …”이라는 구절이 있다. 우리민족끼리라는 말은 북측에서 요구하여 삽입했을 가능성이 많다. 북한이 과거에는 ‘우리민족끼리’를 한·미 이간질을 위한 통일 전선전술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런데 지금은 북한이 미국과 관계개선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간의 틈을 벌일 필요가 없는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북한의 변화된 대남정책을 북한 내부에 설득시키기 위한 대내용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대미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김계관의 발언도 반미주의에 길들여진 북한 내부를 설득하기 위한 대내용의 구호일 수 있다.

이처럼 북한이 등거리 외교를 위하여 남한과 미국에 접근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다. 북한이 남한과의 거래에 적극적인 태도로 방향을 잡았을 때 남북관계를 장기적인 시각에서 잘 관리하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